

KOICA -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 제31차 총회 공동개최

: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향한 공적개발원조(ODA)

정리 : 조 혜 승 / KOICA 홍보실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공동으로 모의국제연합 제31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천년개발목표(MDGs)를 향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의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는 3월 사무국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8월 25일 총회 본회의 까지 총 6개월에 걸쳐 국별대표선발, 기금마련,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었다. KOICA는 젊은 인재들의 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에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술지원 및 총회 심사를 비롯해 장소와 통역기기를 지원하였으며, ODA에 대한 참신하고 우수한 내용을 발연한 대표에게 KOICA 총재상을 시상하였다.

I. 모의국제연합

1. 역사 및 의제

모의국제연합은 1958년 제 1차 총회(의제 : UN 군

축(The Armament Reduction of UN)) 개최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31개의 주요 국제 이슈를 의제로 다루었다. 체코 분쟁(7차)과 중동문제(9차), 국제테러(11차) 등 세계 분쟁문제는 물론 21세기 UN의 역할과 평화 기능(17차), 21세기 시민사회건설을 위한 NGO의 위상과 역할(23차) 등 국제기구, NGO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 정부부처 및 기관의 지원

전국 대학생들의 학술토론의 장이 되어온 모의국제연합은 작년(2006)부터 정부부처와 공동주최를 시작했다. '기후변화협약과 국제사회의 책임'을 의제로 개최된 작년 제31차 총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당시 환경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지원과 장소 제공 등을 협조하였다.

〈표 1〉 최근 5년 모의국제연합 의제

회 차	연 도	의 제
31차	2007	2007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향한 공적개발원조(ODA) - ODA for achieving MDGs
30차	2006	기후변화협약과 국제사회의 책임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and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society
29차	2005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노력 - The role and effort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peace in the Middle East
28차	2004	무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Promot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rade liberalization
27차	2003	난민에 관한 국제 사회의 협력증진 - The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society's cooperation on refugees

3. 제31차 총회 (KOICA 공동주최)

KOICA는 천년개발목표(MDGs)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청년들의 ODA에 관한 논의를 적극 후원하기 위해 이번 제31차 총회를 공동주최하였다.

- 워크숍 및 세미나, 총회 심사 등 학술지원
 - KOICA는 모의국제연합 워크숍 및 세미나에 참석해 각국 대표들에게 빈곤퇴치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과 한국의 ODA 역사, 선진공여국의 원조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 및 민간과의 협력 등을 강의하였다. 또한 총회 당일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각국대표의 기조연설 및 토론을 심사했으며, ODA에 대한 참신하고 우수한 내용으로 발표한 폴란드 대표에게 KOICA 총재상을 시상하였다.

■ 국제개발협력 사진전 및 홍보

- KOICA는 총회 당일 COEX 그랜드 컨퍼런스 룸에 국제개발협력 사진전을 개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실상과 우리나라의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 국별·분야별 사업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모의국제연합 총회와 더불어 천년개발목표, 우리나라의 ODA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적극 홍보해 국민들의 ODA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 장소, 통역장비 임대

- 모의국제연합 총회의 규모가 해마다 증대됨에 따라 KOICA는 이번 총회를 위해 COEX 그랜드 컨퍼런스 룸과 세미나실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임대하였으며, 보조좌석을 배치해 전국에서 참가한 약 1,000명을 수용하였다. 또한 참가자 개인에게 통역장비를 임대해 실제 국제회의와 같은 형태의 회의 진행

을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왔다.

II. 각국대표 주요 발언내용

1. OECD 국가 대표

- 개발협력과 천년개발목표는 전 세계가 개입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일부 몇몇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공여국과 공여국, 수원국과 공여국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추구할 때 우리의 원조는 보다 값진 것이 될 수 있다. (프랑스 대표/성인혜)
- 독일은 2007년 EU와 G8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양질의 거버넌스에 역점을 두는 '개발을 위한 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질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에 입각한 수원국의 주도적인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여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독일 대표/임미경)
- 일본은 지난 수년간 세계 최대의 ODA 공여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원조는 다자간 협력과 노력이 요구되는 문제이니만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본 대표/전주연)

■ 미국은 절망이 만연한 희망의 불모지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와 함께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외교지원을 대표적으로 늘리는 한편, 빈국들의 자발적인 갱생을 위해 전례 없는 무역장벽 철폐 및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대표/김성태)

2. 개발도상국 대표

- 뉴 파트너십은 선진국의 인도주의와 개도국의 주인의식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집트는 2001년에 설립된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촉구한다. 이는 대 아프리카 원조의 사용을 일괄적으로 평가·감시하는 기구의 운영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투명한 원조의 운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 대표/김종성)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페르타이트로부터 벗어나고부터 민주주의 공고화, 흑인기업 강화 정책, 성장 분배 촉진 이니셔티브 등 정책에 오너십(ownership)을 발휘해 원조 수원국 명단에서의 졸업을 앞두며, 아프리카 대륙을 대변하여 말하고자 한다. OECD DAC 회원국과 여러 선진국이 공언한 GNI 대비 0.7% 규모의 원조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노성자)

- 주요 공여국의 원조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에 힘입어 현재 베트남은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성장에 바탕이 된 것은 베트남의 효율적인 ODA 자금 운용이다. 지금까지 ODA 자금은 경제성장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 직접, 간접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본국은 ODA 자금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확신한다. (베트남 대표/이은영)

3. 폴란드 대표(KOICA 총재상 수상)

- 1980년대 말,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세계는 빠른 속도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폴란드는 공산주의 체제 이전과 이후, 경제적·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으며, 2004년 5월 EU 가입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변국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더라면 폴란드는 공산주의의 폐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 해외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다. 세계화가 촉진되는 21세기에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개발원조는 국가간 빈부격차 문제 해결을 통한 지구촌 후생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원조는 더 이상 국제원조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국가발전 의지와 노력 또한 필요하다. 폴란드가 공산주의의 체제에서 벗어나 지금의 경제발전 수준까지 오는 데에는 주변국의 원조와 더불어 자국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요구되는 지침 중 하나가 바로 New Partnership이다. (폴란드 대표/정혜미)